

콘텐츠로서의 북학파(北學派)*

김일환**

<차례>

1. 어느 사진기자의 열하일기 답사기 집필 과정
2. 소설가 김탁환의 '백담파' 시리즈와 고전 번역
3. 『열하일기』의 대중화
 - 1) 연행노정 답사기의 경우
 - 2) 어린이 콘텐츠의 경우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 말하는 '북학파'는 연구자들에 따라 연암그룹, 연암학과, 담연그룹, 담연일파 등으로 부르는, 18세기 후반 홍대용과 박지원을 주축으로 모인 인물들을 말한다. 이들은 스승과 제자이면서, 선배와 후배였고, 친구들이기도 하였다. 이들이 보여준 인간적 결속, 취미 활동, 당대 현실에서 취했던 자세와 태도 등은 그들이 남긴 학술적 성취와 문학 작품으로 남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적인 흥미와 아름다움, 감동을 느끼게 한다. 김탁환의 역사소설 '백담파' 연작을 중심으로 '북학파'의 삶과 역사적·사회적인 지향을 복원하는 방식과 과정을 살폈다. 한편 '북학파'의 청나라 여행, 학술 답사, 청나라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과의 교류와 소통, 옛 강역과 역사와의 만남은 연행(燕行)이라는 체험과 연행록(燕行錄)이라는 체험 기록으로 수렴되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이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열하일기』의 현장을 다시 재현하는 답사기와 어린이 대상 리라이팅 도서를 분석하여 21세기의 현대인이 북학파와 어떻게 접속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두 과

* 이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 제97차 동계학술대회 <고전문학의 콘텐츠화와 콘텐츠 교육>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토론을 맡아주셨던 김현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전임연구원

정에서 고전 번역이 갖는 중요성과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자와 창작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북학파, 열하일기, 답사기, 김택환, 고전 번역, 콘텐츠

1. 어느 사진기자의 열하일기 답사기 집필 과정

여행이 끝나고 일행이 헤어질 무렵 유홍준 교수는 “이제 『열하일기』를 제대로 읽어봐야겠다”고 말했다. 여행 전에 읽는 것과 현장에 다녀온 뒤에 읽는 것은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암 박지원, 그가 궁금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알고 싶었다. 그러자면 우선 『열하일기』 완역본을 읽어야 했다. 여행 전에 읽은 책은 『열하일기』의 전체 스물 여섯 편 중 첫 세 편인 <도강록(渡江錄)>, <성경잡지(盛京雜識)>, <일신수필(駙迅隨筆)>만 수록한 문고판이었다. (중략) 그러나 큰 서점에 알아봐도 완역본은 없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봐도 축약본이나 『신 열하일기』류의 여행기가 있을 뿐이었다. 말하자면 국보급 고전인 『열하일기』를 한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서점에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찾는 책은 아니지만 서점에 전혀 없다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¹⁾

2002년 여름 <중앙일보>가 한중 수교 10주년 기획으로 마련한 ‘新연행록’ 연재를 위해 기획한 ‘연행 노정 답사’에 참여했던 ‘사진 기자’ 최정동은 『열하일기』를 본격적으로 읽어보기로 마음 먹는다. 그 답사의 주요 텍스트이자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는 『열하일기』²⁾를 제대로 읽지 않고 답사에 참여했다는 고백에 독자들은 의아함이 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당

1) 최정동, 『연암 박지원과 열하를 가다』, 푸른역사, 2005, 24~25쪽.

2) 최정동이 읽은 문고판은 민족문화추진회 편, 『열하일기』, 솔, 1998로 추정된다.

시 그는 학술 담당 기자도 아니었고, 답사 과정을 기록하는 ‘사진기자’의 업무를 가지고 임했기에 다소 불성실한 이와 같은 참여 태도는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한 번의 ‘출장’으로 끝내지 않고, 텍스트를 찾아 읽으려 하는 기자의 적극적인 모습에 연구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정동 기자는 ‘내 책’, 즉 자신 소유의 책으로만 ‘읽기’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인다. 도서관에 가지 않고, 서점과 인터넷에서 『열하일기』를 찾았다. 하지만 당시 시판되고 있는 『열하일기』 완역본은 없었다. 마침내 그가 인사동 헌책방에 찾아낸 것은 1968년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연민 이가원 선생의 2권으로 된 번역본 『국역 열하일기』였다.³⁾ 1977년에 나온 수정판이나 1984년에 나온 ‘중판도 아니고, 복사본도 아닌 원본 초판’을 구한 그는 의기양양하게 『열하일기』에 빠져 든다.⁴⁾ 이후 김명호 교수에게서 직접 전화하여 학술서인 『열하일기 연구』(창작과비평사, 1990)를 받아 내고, 돌베개출판사에 전화하여 절판 후 1권 밖에 남지 않은 박희병 교수의 『나의 아버지 박지원-過庭錄』(돌베개, 1998)을 구한다.⁵⁾ 박희병 교수가 서문에서 ‘다시는 번역이나 주석 다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⁶⁾에 ‘나 같은 사람’, ‘한글세대’는 고전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표한 뒤에, “인문학이 사위어감을 한탄만 하

3) 연민의 『열하일기』 번역에 대해서는 서현경, 『연민선생과 『열하일기』 번역』,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4) 최정동(2005), 앞의 책, 26~27쪽.

5) 최정동(2005), 위의 책, 28쪽.

6)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책머리에』,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한편 박희병 교수의 책 이전에 『과정록』 번역은 이미 2종이 나와 있었다. 김영호 해설, 송옥역, 『아버지 朴燕巖』, 『文學思想』 1974년 5월호, 6월호; 박종채 저, 김윤조 역주, 『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다만 『文學思想』의 번역본은 전문 번역이 아니었다. 김윤조 교수는 ‘연암의 본디 면모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한국한문학연구』 영인본(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을 대본으로 선택했고, 박희병 교수는 ‘완성본’인 『열상고전연구』 영인본을 대본으로 하고 있다.

지 말고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갖자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벽돌을 한 장씩 쌓아야 한다고, 그래야 인문학이라는 견고한 성채가 쌓아질 것 아니냐”⁷⁾며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번역서를 출간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최정동 기자가 보인 일련의 행동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일반인 열성 독자에게는 일종의 보물 찾기 혹은 지적 편력으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었다.

최정동 기자는 『열하일기』를 일독한 뒤에 당시 나와 있던 연암과 『열하일기』 관련 출판물을 일별했다. 그가 답사기를 작성함에 있어 도움을 받았다는 책의 목록을 보이고, 개별 도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 ① 홍대용 원작, 김태준·박성순 편역,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 ②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연암 박지원의 예술론과 산문미학』, 태학사, 2003.
- ③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궁핍한 날의 벗-박제가 산문선』, 태학사, 2000 *태학산문선 101
- ④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북학의』, 돌베개, 2003.02 *참 우리 고전 5
- ⑤ 김영호, 『조선의 협객 백동수』, 푸른역사, 2002.04
- ⑥ 지영제, 『서정록을 찾아서-고려 시인 익재 이제현의 대륙 장정』, 푸른역사, 2003.07
- ⑦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3(개정판, 2004) *리라이팅 클래식 001

7) 최정동(2005), 위의 책, 28~29쪽.

①은 홍대용이 쓴 한글 연행록 『을병연행록』의 현대어역으로, 돌베개 출판사의 ‘참 우리 고전’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이다. 1983년 명지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영인본⁸⁾, 1997년 숭실대 팀의 주해본⁹⁾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현대어역이었다. 하지만 이 현대어본은 미완의 책이다. ‘한 권’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출판사의 요구에 전체 1,300장(張)에서 100여 장을 덜어내면서 ‘발췌본’이 되고 말았다. 20권 20책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을병연행록』을 20개 장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5부로 묶고, 각 장절에 적절한 제목을 붙여 가독성을 높였다. 완역본 『을병연행록』은 2012년에 정훈식에 의해 ‘두 권’으로 간행되었다.¹⁰⁾ 장서각본을 저본으로 하고 숭실대본으로 교감했으며, 돌베개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곳에 제목을 붙여 장을 나누었다. 번역자가 현지 답사를 하면서 촬영한 현장 사진과 각종 자료 사진이 컬러로 수록되어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현재 종이책은 절판 상태이고, ebook으로 유통되고 있다.

②는 정민 교수가 처음으로 낸 연암 관련 단행본으로 『현대시학』에 2년 동안 연재한 글을 모아 엮었다.¹¹⁾ 연암의 산문 약 40편을 대상으로 한 25편의 독립된 글로 이루어졌고, 박지원의 예술론과 인식론, 인생론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인터넷 서점의 서평이나 리뷰를 살펴보면, 연암과 정민 교수에 대한 독자들의 상찬이 넘쳐난다.

③과 ④는 안대회 교수의 작업이다. 안대회 교수는 18세기 한시와 소품

8) 홍대용, 김태준 편, 『을병연행록』(국학자료총서 3), 명지대학출판부, 1983.

9) 소재영·조규익·장경남·최인환 주해, 『국문으로 된 최초의 장편기행-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10) 홍대용 지음, 정훈식 옮김, 『을병연행록-18세기 장편 국문 연행록의 현대어 완역본』(전2권), 경진, 2012.

11) 정민 및 안대회 교수의 고전 산문 대중화 작업에 대해서는 박동욱, 「고전 산문 대중화의 현황과 전망-한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4, 국제어문학회, 2017, 371~402쪽 6 참조.

문(小品文)을 학계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새로운 관심을 촉발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잘 알려진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자료를 섭렵해서 앞선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다루던 인물보다는 자신이 직접 발굴한 작가들을 소개하며, 일반 독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새롭고 풍성한 자료를 제시했다.¹²⁾ ③은 그가 박제가의 산문 가운데 정채로운 작품들을 뽑아 만든 선집으로, 현재까지 총 32권이 나온 <태학산문선>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원제(原題)를 직역하지 않고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제목에 깔끔하고 유려한 번역, 간결한 개별 작품 해설은 이 시리즈가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무엇보다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사대부의 반을 제거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유교적 신분질서에 대항하는, 과격하고 성마른 이미지의 박제가에게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을 가진 시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도를 지키는 따뜻한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부여하였다.

④는 박제가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인 『북학의』의 번역본이다. 돌베개의 ‘참 우리 고전’ 시리즈의 다섯 번째로 나온 이 책은 안대회 교수의 충실한 번역으로 당대 조선 사회의 문제에 걱정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젊은 날 박제가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시켜 준다. 안대회 교수는 『북학의』의 이본 20여종을 교감하여 정본을 만들어 완역했고,¹³⁾ 다시 대중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버전도 출간했다.¹⁴⁾

⑤의 저자 김영호는 ‘무예인(武藝人)’이다.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우연히 『한국의 전통무예』라는 책 한 권을 접하면서 전통 무예 24기를 익혔

12) 박동욱(2017), 위의 책, 35쪽.

13)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완역정본 북학의』, 돌베개, 2013.

14)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쉽게 읽는 북학의-조선의 개혁, 개방을 외친 북학 사상의 정수』, 돌베개, 2014.

고, 조선 무사들의 생애에 관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편찬 총감독이었던 백동수의 생애를 조명함으로써 조선 무(武)의 숨겨진 향내를 맡고자 하였다. ‘숨겨진 무사’ 백동수는 문집은커녕 행장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빈약한 사료에 그의 벗인 성대중,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유금, 성해응과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 등이 남긴 시문을 더해 백동수의 일대기를 복원했다. 집필 과정만 7년이 걸렸다고 한다. 백동수를 모델로 그려졌다는 『무예도보통지』의 삽도(插圖)를 비롯하여 조선 무사와 선비에 관련된 그림과 기타 이미지 자료 200여 장을 책 곳곳에 배치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본인이 참여했던 ‘정조시대 전통무예전’(2001.06., 수원 화성)의 화보를 첨부하여, 교안(教案)과 실연(實演)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열정으로 만들어진 책은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들사람[野餼]’ 백동수를 되살렸다.¹⁵⁾ 그는 출간 10년 후 그동안 추가로 발견된 자료와 출간 당시의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판을 내놓았다.¹⁶⁾

⑥은 익재 이제현이 14세기 원나라 치하의 대륙을 가로질러 사천성(四川省) 아미산(蛾眉山)까지 여행하고 나서 엮은 작은 시집 『서정록(西征錄)』과 그 이후 감숙성 도스마까지 여행하고 엮은 시집 『후서정록(後西征錄)』을 텍스트로 하고 있다. 작가는 1316년 아미산 길, 1319년 보타산 길, 1320년 연행 길, 1323년 도스마 길을 7년에 걸쳐 답사한 뒤에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내었다. 중국 대륙을 종횡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답사기이면서, 방대한 중국사를 배경으로 이제현의 기행 시편을 정치하게 분석한 작품 해설서이자, 중문학 연구자의 꼼꼼한 번역 시집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15) SBS 드라마 <무사 백동수>(29부작, 2011.07.04.~2011.10.10.)

16) 김영호, 『조선의 협객 백동수-18세기 조선 남아들의 인생 역정』(수정증보판), 푸른역사, 2011.

있다. 활자 텍스트로 뽀뽀하게 채운 전체 655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까지 더해져,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통독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전문서적이다.

㉚은 『열하일기』를 대중화시키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책이다. 작가 고미숙은 학계와 ‘연구실’이라는 두 세계에 걸쳐 있다가, 마침내 ‘지식 공동체’로 넘어가는 즈음에 『열하일기』와 조우했고, ‘유목(노마드)’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썼다’고 하였다. 『열하일기』라는 ‘친숙한’ 텍스트를 ‘낯설고’ 경쾌하게 읽어낸 것처럼 보이는 이 책은 출간된 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8쇄를 찍는 기염을 토한다. 그는 ‘전국 곳곳을 다니며 『열하일기』를 알리는 전령사’가 되었다. 다만 제목에서 연상되는 것과 달리 작가는 책이 출간된 뒤에 비로소 『열하일기』의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 개인 답사에 이어 책의 성가에 힘입어 방송가의 책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현지 촬영에 나선 것이다. 이 두 차례의 여행 동안 찍은 사진을 추가하고, 신문에 연재한 여행기를 에필로그에 더하고, 작가가 『열하일기』를 해체할 때 사용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져서, 1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다. 10년 뒤에 출판사를 바꾸어 개정신판이 다시 나오으로써¹⁷⁾ 변함없는 인기와 독자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 개정판 서문에서 그는 “『열하일기』를 직접 읽고 싶다는 독자들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열하일기』를 현대판 버전으로 변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세계최고의 여행기’라는 타이틀을 붙여 2권짜리 『열하일기』 현대역본을 출간하였다.¹⁸⁾ ㉚의 청소년 버전도 있는데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이라는 수

17)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개정신판), 북드라망, 2013.

18) 박지원 지음, 고미숙·김풍기·길진숙 옮김, 『세계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상하, 그린비, 2008. 이 책 역시 ‘유쾌한 시공간’과 함께 2013년 북드라망에서 ‘개정신판’이 나왔다.

식으로 『열하일기』를 소개하고 있다.¹⁹⁾

서양사를 전공한 광차섭은 영어권을 대상으로 고전의 실용화 과정을 3 단계로 나눈 바 있다.²⁰⁾ 한국적 상황에서 전문 학자부터 일반대중에 이르는 인문학/고전의 확산 과정을 보일 수 있도록 약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전문 학자가 한문으로 된 원 자료를 해독하고 연구하여 논문과 연구서를 쓰거나 해당 텍스트를 번역·주해한다. 이는 ‘학문적 글쓰기’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아직 대중이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후의 풀어쓰기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토대 작업이 된다.

둘째, 전문 학자 혹은 상당한 학식을 갖춘 중간 필자가 이러한 연구 결과나 학술 번역을 일반 독자에게 이해 가능하고 흥미를 유발할만한 방식으로 ‘고쳐쓰기(rewriting)’를 하는 단계이다. 바로 이로부터 가공이 시작된다. 이 단계는 고전의 대중화를 위한 필수적인 중간 과정이다.

셋째, 완전한 대중화 단계이다. 어린이,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위한 고전 입문이나 그 외 다양한 주제의 책이 있을 수 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웹툰, 팟캐스트도 빼놓을 수 없는 장르이다. 이 단계에 오면 내용 자체도 독자의 수준에 알맞게 변형될 필요가 있다. 내용의 큰 줄기와 대체적인 사실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약간의 내용 변경은 허용된다.

3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최정동 기자가 수행한 작업은 ‘완전한 대중

19) 박지원 지음, 고미숙 엮음, 이부록 그림,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나의 고전 읽기 7), 아이세움, 2007.(현재 절판)

20) 광차섭, 『고전은 어떻게 ‘실용화’되는가?-영어권의 경우를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49~50쪽 참조.

화 단계'의 콘텐츠이다. 그가 참조한 ①~⑦은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을병연행록』의 현대어역인 ①, 박제가의 한문산문의 선역(選譯)인 ③, 『북학의』의 완역본인 ④는 첫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박지원의 산문 작품을 개별적으로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주제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풀어 번역한 ②, 이곳저곳에 산포(散布)된 개별 자료를 그러 모아 백동수라는 '무인 협객'으로 만들어낸 ⑤, 지리와 역사와 문학을 하나로 묶어낸 노작인 ⑥, 아예 둘째 단계의 작업임을 노골적으로 밝힌 ⑦은 둘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첫째 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물들은 모두 정확한 번역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어 텍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공유한다. 둘째 단계의 작업은 작업자의 의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②와 ⑥이 학술적인 지향을 보인다면, ⑦은 '지적인 유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칠게 양분하자면 '이해'와 '흥미'의 비중에 따라 완성된 결과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소설가 김탁환의 '백담파' 시리즈와 고전 번역

2003년 비전공자인 사진기자 최정동이 『열하일기』와 씨름하는 동안 전공자²¹⁾라 할 수 있는 소설가 김탁환은 '백담파' 연작의 첫 번째 권을 집필하고 있었다. 『방각본 살인사건』이다.²²⁾ 김탁환은 <참고문헌>에서 서대

21) 김탁환은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사씨남정기계 小説 研究』(1993)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2) 김탁환, 『방각본 살인 사건』(白塔派, 그 첫 번째 이야기, 상하 2권), 민음사, 2003. 이 작품은 2007년 10월까지 17쇄를 찍었고, 2007년 12월에 2판을 찍었다. 현재 서점에서 유통되는 책은 '소설 조선왕조실록 03,04로 새롭게 '넘버'가 매겨져 2015년 2월에 출

석, 이창현, 안대회, 정민, 강명관의 저서와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감사의 말을 하며, 자신이 소설에서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으로 녹인 원전 번역본을 주요한 참고 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이면서, 비평가이고, 소설가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그 외 자료’와 ‘연구편’은 생략하고, ‘등장인물 관련 자료’로 제시한 원전과 번역본만 제시한다.²³⁾

『정조실록』,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편, 1991

정조, 『국역 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편, 1997

정조 외, 『홍재전서, 영재집, 금대집, 정유집』, 송준호, 안대회 역, 고려대 민족문제연구소, 1996

박지원, 『연암집』,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표점, 한국문집총간 236-237, 1999

박지원, 『국역 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편, 1968

박지원, 『비슷한 것은 가짜다』, 정민 역, 태학사, 2000

박지원, 『연암 박지원 산문집』, 리가원·허경진 역, 한양출판, 1994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희병 역, 돌베개, 1998

홍대용, 『국역 담헌서』,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4

홍대용,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김태준·박성순 역, 돌베개, 2001

홍대용, 『임하경륜·의산문답』, 조일문 역, 건국대학교 출판부, 1975

이덕무, 『국역 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 편, 1981

이덕무,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 정민 역, 열림원, 2000

박제가, 『초정전서』, 아세아문화사, 1992

박제가, 『궁궐한 날의 벗』, 안대회 역, 태학사, 2000

간된 개정판이다.

23) 김탁환, 『방각본 살인 사건(하)』(2판), 민음사, 338~340쪽. 작가 뒤에 번역자가 오는 것이 논문에 맞는 표기이나 김탁환의 표기 방식을 따랐다.

- 박제가, 『북학의』, 안대회 역, 돌베개, 2003
유득공, 『영재집』,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표집, 한국문집총간 260, 2000
유득공, 『발해고』, 송기호 역, 홍익문화사, 2000
유득공, 『경도잡지』, 이석호 역, 을유문화사, 1969
박제가 외, 『무예도보통지』, 임동규 역, 학민사, 1996
박제가 외, 『사가시선』, 여강출판사, 2000
이규상, 『18세기 조선 인물지』, 민족문제연구소 한문학분과 역, 창작과비평사, 1997

김탁환은 <작가의 말>에서 ‘백담 아래 모여 북학을 갈망한 서생들의 꿈과 야망을 충실히 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다. ‘실학은 무조건 옳다는 관점에서 한 발 물러나 백담파의 규장각 진출이 지닌 객관적 의미와 그들의 정치적 한계 등도 그려 보고 싶었다’고도 했다. 앞의 ‘욕망’은 위에 제시한 연구자들의 고되고 오랜 작업의 결과물로 직조될 수 있었고, 뒤의 ‘의도’는 작가 ‘자신과 동년배인 386세대’의 참여 정부 동참을 중첩시킴으로써 풀어갈 수 있었다.

우선 ‘역사소설은 그 나라 국학의 수준과 정비례한다’고 언젠가 썼었다. 정말 그렇다. 내가 『방각본 살인사건』에서 그래도 백담파를 비슷하게나마 그리게 된 것은 학자들의 탁월한 연구성과 덕분이다. 5년 남짓 집중적으로 쏟아진 18세기에 대한 탐색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연구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소설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매월당 김시습에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도 심경호 선생님이 『김시습평전』(돌베개)를 내셨기 때문이다. 그 책을 읽노라면, 정말 매월당을 전혀 다르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방각본 살인사건』에서 절반 정도는 소설가 김탁환이 쓴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18세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젊은 학자들(특히 안대회, 정민, 강명관, 이종목, 강혜선 선생님)이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

런 행복한 배움의 여정이 주옥 이어졌으면 한다.²⁴⁾

실제로 작품을 읽다보면, 김탁환의 말이 겹이나 공치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매 장의 시작에는 소제목 아래 그 장의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된 백담파와 정조, 혹은 옛문인들의 글을 배치하였다. 이런 방식은 『방각본 살인사건』 외에 『열하 광인』²⁵⁾에도 적용되었다. 『열하일기』와 문체 반정을 다루고 있는만큼 홀수 장에는 박지원의 글을, 짝수 장에서는 『일득록』에 실린 정조의 글로 문을 열고 있다. 북학파 일원들 사이의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덕무가 적성 현감으로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열녀문의 비밀』²⁶⁾이나 세월호 사건에 촉발되어 쓴 『목격자들』²⁷⁾은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²⁸⁾ 최근 에 나온 이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인 『대소설의 시대』²⁹⁾은 모두 2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엄씨효문청행록」부터 제24장 「명주보월빙」까지 실존하는 ‘대소설’의 제목으로 각 장의 제목을 달았다.

김탁환이 북학파 연구자들의 번역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방각본 살인 사건』의 <3장-백담파>가 대표적이다. 이 챕터에서는 앞으로

24) 김탁환, 『2003년 7월 16일-책 출간 후의 몇 가지 느낌들』, 『김탁환의 원고지-2000~2010 창작일기』, 황소자리, 2011, 126~127쪽.

25) 김탁환, 『열하광인, 백담파 그 세 번째 이야기』, 민음사, 2007. 역시 2015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1장의 서두에는 박지원의 「원사(原士)」가 인용되어 있다. “천하 사람들이 편안히 앉아 글을 읽을 수 있게 한다면, 천하가 무사할 것이다.”

26) 김탁환, 『열녀문의 비밀-백담파 그 두 번째 이야기』, 민음사, 2005. 시리즈 1권과 마찬가지로 2007년에 2판, 2015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27) 김탁환, 『목격자들-조운선 침몰 사건』, 민음사, 2015.

28) ‘방각본’, ‘열녀문’, ‘열하’와 같은 18세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이라는 현대적인 용어가 제목으로 뿔히고, ‘조운선’이 부제로 들어갔다. <작가의 말>에서 제 일성이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다”였다.

29) 김탁환, 『대소설의 시대』(전2권), 민음사, 2019.

이 시리즈를 이끌어 나가는데 등장하는 백담과의 일원들을 제시하고 있다. 시작은 백담파들의 동인회 활동을 요약한 박제가의 <백담청연집서(白塔淸緣集序)>와 그 구성원을 밝힌 박종채의 『과정록(過庭錄)』을 인용하고 있다.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면, 가상의 인물로 이 시리즈의 화자(話者)인 의금부 도사 이명방이 의형제를 맺은 백동수를 따라 서상수의 서재인 관재(觀齋)로 가서 10여명의 서생과 조우한다. 하지만 작가는 10여명을 모두 호명하지 않는다. 서재의 주인인 서상수도 이명방에게 물을 떠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발언권을 가진 이는 연암 박지원, 담헌 홍대용, 형암 이덕무, 단원 김홍도, 초정 박제가, 영재 유득공뿐이다. 문집이나 그림 같은 자기 콘텐츠를 가진 사람만이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고 있다. 사실 김홍도는 ‘말’보다는 ‘그림’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명방이 자신이 사형을 집행한 ‘매설가(賣說家)’ 청운몽에 대한 백담파의 추모를 문제 삼자, 서생들은 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발언하기 시작한다. 이덕무는 『선굴당농소』에 있는 <知己>³⁰⁾를 벼에 대한 그리움으로 풀어낸다. 이어 박지원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與人』의 뒷부분³¹⁾으로 열변을 토한다. 연암의 <與人>은 그가 안의현감으로 있던 시절(1792~1796)에 지은 작품인데, 서두에 박제가의 상처(喪妻)와 이덕무의 죽음

30) 李德懋, 『蟬橋堂濃笑』, 『靑莊館全書』 권63, “若得一知己, 我當十年種桑, 一年飼蠶, 手染五絲, 十日成一色, 五十日成五色, 曬之以陽春之煦, 使弱妻, 持百鍊金針, 繡我知己面, 裝以異錦, 軸以古玉, 高山峨峨, 流水洋洋, 張於其間, 相對無言, 薄暮懷而歸也.”

31) 朴趾源, 『與人』, 『燕巖集』 권10, “鍾子期死矣, 爲伯牙者, 抱此三尺枯梧, 將向何人鼓之, 將使何人聽之哉! 其勢不得不拔佩刀, 一撥五絃, 其聲戛然. 於是乎, 斷之絕之觸之碎之破之踏之, 都納竈口, 一火燒之, 然後乃滿於志也. 吾問於我曰: ‘爾快乎?’ 曰: ‘我快矣!’ ‘爾欲哭乎?’ 曰: ‘吾哭矣.’ 聲滿天地, 若出金石, 有水焉, 迸落襟前, 火齊瑟瑟, 垂淚舉目, 則空山無人, 水流花開, 爾見伯牙乎? 吾見之矣.”

언급되어 있어 1793년 여름 무렵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기(知己)를 잃은 슬픔이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더 하다면서 쓴 글이다. 이 글에는 독자에 따라서는 절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³²⁾이 있지만, 작가의 절묘한 발췌와 정민 교수의 유려한 번역³³⁾에 힘입어 편지글은 감동을 자아내는 응변으로 바뀌었다. 홍대용과 이덕무는 김홍도의 그림 솜씨를 뽐내게 하기 위해 ‘코끼리’를 화제(畫題)로 제시할 때, 북경에서 본 코끼리를 추억하고 있다. 각기 『연기』과 『입연기』의 해당 대목³⁴⁾을 대화로 가져온 것이다.

4장에 가면 이명방이 백동수에게 박제가에 대해 묻자, 백동수는 유명한 박제가의 짧은 자서전 『소전(小傳)』³⁵⁾을 외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백담과 문인들이 지은 글을 대사로 녹여내거나, 유기(遊記)를 가지고 경관이

32) “아내를 잃은 자는 오히려 두 번, 세 번 장가들어 아내의 성씨를 몇 가지로 하더라도 안될 바가 없다. 이는 마치 옷이 터지고 찢어지면 김거나 꿰매고, 그릇과 세간이 깨지거나 부서지면 새것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혹 뒤에 얻은 아내가 앞서의 아내보다 나은 경우도 있고, 혹 나는 비록 늙었어도 저는 어려, 그 편안한 즐거움은 새 사람과 옛사람 사이의 차이가 없다. 벼를 잃은 아픔에 이르러서는, 다행히 내게 눈이 있다 해도 누구와 더불어 내가 보는 것을 함께 하며, 귀가 있다 해도 누구와 더불어 듣는 것을 함께 하며, 입이 있더라도 누구와 함께 맛보는 것을 같이 하며, 코가 있어도 누구와 더불어 냄새 맡는 것을 함께 하며, 다행히 내게 마음이 있다 해도 장차 누구와 더불어 나의 지혜와 깨달음을 나눌 수 있겠는가? 叩盆者, 猶得再娶三娶, 卜姓數四, 無所不可, 如衣裳之綻裂而補綴, 如器什之破缺而更換, 或後妻勝於前配, 或吾雖皤, 而彼則艾, 其宴爾之樂, 無間於新舊. 至若絕絃之痛, 我幸而有目焉, 誰與同吾視也; 我幸而有耳焉, 誰與同吾聽也; 我幸而有口焉, 誰與同吾味也; 我幸而有鼻焉, 誰與同吾嗅也; 我幸而有心焉, 將誰與同吾智慧靈覺哉.”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연암 박지원의 예술론과 산문미학』, 태학사, 2000, 267쪽.)

33) 이 글이 실린 스무번째 이야기 『제2의 나를 찾아서』는 박지원의 우정론을 다루고 있다. 정민은 <與人>을 설명한 뒤에 이덕무의 <知己>를 가져와 논의를 마무리했는데, 김탁환은 이를 대화처럼 처리한 것이다.

34) 洪大容, 『正朝朝叅』, 『燕記』; 李德懋, 『정조 2년 6월 7일』, 『入燕記』(下). 홍대용의 말은 원문의 번역문에 작가가 가필했고, 이덕무의 대화는 원문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다.

35) 朴齊家, 『小傳』, 『貞齋閣集』 권3.

나 심리를 묘사하는 대목이 시리즈 전반에 흩어져 있다.³⁶⁾ 민음사 장은수 편집장이 작가에게 한 “18세기에 들러붙이라는 주문”, “더 고증하여 어렵게 가라”는 조언³⁷⁾이 이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백담과 시리즈의 이명방은 설록 홈즈 시리즈의 왓슨 박사(John H. Watson)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다. 홈즈 시리즈의 대부분을 왓슨이 쓴 것처럼 백담과 시리즈의 화자는 임진왜란 해전의 영웅이었던 이억기의 후손인 의금부 도사 이명방이다.³⁸⁾ 문무를 겸비하고, 소설을 사랑하는 매설가(賣說家)인 그는 무과급제자 답지 않게 실수도 잦고, 부상도 많다. 이런 그를 압도하여 바람처럼 사라졌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잔뜩 꼬인 상황을 한번에 풀어내는 ‘명탐정’, 이 시리즈의 진정한 주인공은 규장각 ‘오검서’로 불리는 서리 김진(金眞)이다. 꽃에 미쳤다 하여 ‘화광(花狂)’이라 불리는 그는 박제가가 쓴 『백화보서(百花譜序)』의 주인공 ‘김군(金君)’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김군’을 작가가 ‘김진’이라는 조선 최고의 서재이자, 여행가, 박물학자, 탐정으로 새롭게 만들어냈다. 김탁환은 ‘김군’을 『백화보서』를 <꽃에 미친 김군>으로 번역한 안대회의 『궁궐한 날의 벗』을 통해 접한 것으로 보인다. 안대회는 해설에서 김군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대신 명말의 소품가 장대(張岱)와 이덕무의 글을 가져와 ‘매니아(mania)’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탁환이 ‘김진’이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김탁환이 2010년에 나온 박제가 전집 번역본³⁹⁾을 만났더라

36) 간혹 주석으로 인용했음을 보여주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녹아들어가 있다.

37) 김탁환, 『김탁환의 원고지-2000~2010 창작일기』, 황소자리, 2011, 110쪽.

38) 김탁환(2003), 앞의 책, 12~13쪽. “나의 본은 전주(全州), 이름은 명방(明房), 자는 홍구(洪丘), 호는 청전(靑箭)이다. 선무 이등 공신으로 임진년(壬辰年, 1592)과 정유년(丁酉年, 1597)에 있었던 바다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신 의민공(懿愍公, 이억기) 그 어른이 바로 오대조이다.”

39) 박제가 지음, 정민·이승수·박수필 외 옮김, 『정유각집』(상중하, 전3권), 돌베개, 2010.

면, ‘김균’을 지금의 ‘김진’처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번역자들은 ‘김균’이 『이향견문록(異鄉見聞錄)』에 실린 삼양재(三陽齋) 김덕형(金德亨)으로 밝혔고⁴⁰⁾, 『이향견문록』에는 김덕형과 강세황(姜世晃, 1713~1791)과의 인연, 손자인 김건식(金健植)과 『이향견문록』의 저자 유재건과의 인연, 김덕형이 그린 그림에 제한 이덕무의 시가 실려 있어 작가 김택환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⁴¹⁾

소설에서는 김진과 이명방이라는 가상의 인물 두 명이 백담파의 문인들과 함께 정조 년간의 괴이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조연으로는 채제공이나 홍국영 같은 실제 역사 인물, 백담파와 관계가 있어 그들의 글에 언급된 실제 인물⁴²⁾,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야담이나 설화 속 인물들, 가상의 악인들이 등장한다. 매 작품마다 사건은 해결되지만 영 개운치가 않다. 적어도 이 시리즈에서만큼은 ‘비극 작가’임을 자임하는 김택환의 세계관이나 실제 역사 속에서의 백담파 문인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담파 문인들이 결국 자신들의 의지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죽은 이후의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후일담 형식도 한몫 하고 있다.

문제는 ‘백담파’ 시리즈라고 하여 이들 동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8세기에 ‘들어붙은’ 대사를 하는 인물은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40) 박제가 지음, 정민·이승수·박수필 외 옮김, 『정유각집』(하), 돌베개, 2010, 146쪽.

41) 유재건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이향견문록』(개정판), 글항아리, 2008, 455~456쪽.

42) 예를 들어 『망각본 살인사건』에서 범인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각수(刻手) ‘도침’은 백동수의 친구인 장세경(張世經)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는 『무에도보통지』를 판각할 때 정조의 친필인 ‘어정 무에도보통지’와 정조가 짓고 채제공이 옮겨 쓴 서문을 판각한 실존인물 장세경이다.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 4월 29일(기묘). 함께 왕명을 수행한 경험이 있던 박제가 장세경의 아들이 13살에 요절하자 묘지명(『張蠟墓誌銘』)을 써주기도 하였다. 작중 그의 별명이 ‘목치(木痴)’인데, 이는 북학파의 구성원이었던 석치(石痴) 정철조(鄭喆祚)에서 가져온 것이다.

박제가로 한정된다. 『방각본 살인사건』에서는 박제가, 『열녀문의 비밀』⁴³⁾에서는 이덕무, 『열하 광인』⁴⁴⁾에서는 박지원, 『목격자들』에서는 홍대용이

43) 다음은 『열녀문의 비밀』에 수록된 ‘자료편’의 목록이다.

- 박지원, 『국역 열하일기』, 리상호 역, 보리, 2004.
권문해, 『대동운부군옥』,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회연구회 역, 소명출판, 2003.
빙허각 이씨, 『규합총서』, 이민수 역, 기린원, 1988.
서호수·성주덕·김영 편저, 『국조역상고』, 이은희·문중양 역, 소명출판, 2004.
왕여, 『신주무원록』, 김호 역, 사계절, 2003.
원평도, 『역주 원중량집』, 심경호 외 역, 소명출판, 2004.
이혜순·김경미 편역,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허준, 『동의보감』, 동의과학연구소 편, 휴머니스트, 2002.
현풍 꺾씨, 『현풍 꺾씨 인간 주해』, 백두현 주해, 태학사, 2003.
이강철 외, 『역대 인물 초상화 대사전』, 현암사, 2003.

44) 다음은 『열하 광인』에서 추가된 ‘자료편’이다.

- 강희영, 『19세기 선비의 의주·금강산 기행』, 조용호 역주, 삼우반, 2005.
김홍도, 『단원 풍속도첩』, 민음사, 2005.
남궁철, 『작은 것의 아름다움』, 안순태 역, 태학사, 2006.
박재연·김영 교주, 『평산냉연』, 이회, 2003.
박지원,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며』, 박희병 역, 돌베개, 2005.
박지원, 『연암집』, 신호열·김명호 역, 돌베개, 2007.
박지원, 『연암산문정독』, 박희병 외 편역, 돌베개, 2007.
서유구, 『산수간에 집을 짓고』, 안대회 편역, 돌베개, 2005.
성대중, 『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홍학회 역, 소명출판, 2006.
성대중, 『궁궐 밖의 역사』, 박소동 역, 열린터, 2007.
성주덕, 『서운관지』, 이면우·허윤섭·박권수 역, 소명출판, 2003.
심노승, 『눈물이란 무엇인가』, 김영진 역, 태학사, 2001.
원중거, 『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원중거,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2006.
유급, 『말뚝구슬』, 박희병 역, 돌베개, 2006.
유득공, 『누가 알아주랴』, 김윤조 역, 태학사, 2005.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조용희 외 역, 돌베개, 2006.
이광사, 『원교 이광사 문집』, 심경호 회 역, 시간의 물레, 2005.
이옥, 『역주 이옥전집』,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소명출판, 2001.
이용휴·이가환, 『나를 돌려다오』, 안대회 역, 태학사, 2003.
이종묵 편역, 『누워서 노니는 산수』, 태학사, 2002.

다른 인물들보다 두드러지게 활약하고 있다. 유득공은 주로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회상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서자가 아닌 이서구는 출현 빈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이는 담헌, 연암, 형암(청장관), 조정(정유)의 거의 모든 시문이 번역되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와 연구논문의 분포와 빈도, 밀도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탁환은 북학파에 있어 시문이나 저술이 남아 있지 않은, 혹은 저작은 있으나 아직 번역본이 나오지 않은 인물은 아직 주요한 캐릭터로 만들어 내지 않고 있다.⁴⁵⁾ 또한 이들은 현달한 인물들이 아니어서 실록에 그 행적이나 조정에

- 이지, 『분서』, 이해경 역, 한길사, 2004.
 임방, 『천예록』, 정환국 역, 성균관대출판부, 2005.
 정민 역·평설, 『돌 위에 새긴 생각-학산당인보기』, 열림원, 2000.
 진재교 편역,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삶』, 태학사, 2005.
 진재교 편역, 『조선후기 인물전』, 현암사, 2005.
 홍길주,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생각장고』, 정민 외 역, 돌베개, 2006.

45) ‘북학파’는 연구자들에 따라 연암그룹, 연암학과, 담연그룹, 담연일파 등으로 부르는, 18세기 후반 흥대용과 박지원을 주축으로 모인 인물들을 말한다. 아래는 ‘연암그룹’으로 부르는 오수경이 정리한 북학파의 명단이다. 오수경, 『연암그룹 연구』(수정증보판), 월인, 2013, 59쪽. 초판은 2003년에 나온. 오수경은 이 책에서 윤암 이희경, 교교재 김용경, 현천 원증거, 석치 정철조, 기하 유금, 관헌 서상수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구성원 字 號 堂號

- 朴趾源(1737~1805) 仲美 燕巖 孔雀館
- 洪大容(1731~1783) 德保 湛軒 留春塢
- 鄭喆祚(1730~1781) 誠伯 石痴
- 徐常修(1735~1793) 汝五 觀軒 汝五齋, 東庄, 觀齋, 物軒
- 柳 琴(1741~1793) 連玉 幾何 幾何室
- 李德懋(1741~1793) 務官 雅亭 青莊館, 炯菴
- 尹可基(1745~1801) 曾若 三疎軒
- 李喜經(1745~?)) 聖緯 綸菴 十三齋
- 李喜明(1749~?)) 聖欽
- 柳得恭(1748~1807) 惠風 泠齋 古芸堂, 泠菴
- 朴齊家(1750~1805) 在先 楚亭 茗翳堂, 解語花齋
- 李書九(1754~1825) 洛瑞 薑山 素玩亭
- 徐有本(1762~1822) 混原 左素

서 주고받은 대화, 장소 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 픽션인 소설이야말로 완전한 대중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설가(賣說家)’를 자처하면서 ‘매설가’를 이야기하고 만들어 내고 있는 김탁환이 백담과 시리즈에서는 실존 인물의 틀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팩션(faction)에 대한 강박이 소설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실체가 쓴 시문을 결부시키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이는 김탁환이 자신이 쓴 역사소설들 가운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정도전’, ‘황진이’, ‘허균’, ‘김만중’, ‘궁녀 리십’에 백담과 시리즈까지 결합시켜 ‘소설 조선왕조실록’ 시리즈로 다시 묶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도 하겠다. ‘들러붙는’ 차원에서 ‘실록’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앞에서 제기한 세 단계에서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열하일기』의 대중화

1) 연행노정 답사기의 경우

논문의 시작을 최정동 기자의 『열하일기』 답사기로 시작했는데, 정작 그가 쓴 답사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했다. 최정동 『열하일기』의 장점은 역시 사진이다. 전문가의 안목과 노력이 돋보이는, 그래서 당시까지 출간된 연행 노정 사진으로는 최고의 수준에 해당하는 작품들이었지만, 흑백으로 책을 내면서 전혀 ‘어필’하지 못했다. 디지털 카메라가 한참 보급되었고, 싸이월드를 비롯하여 누구나 컬러 디지털 사진을 자유자재로 활용

○徐有樂(1764~1845) 準平 楓石

○金用謙(1702~1789) 濟大 嘯嘯齋 朝爽閣, 北樓

○林配屋(1718~1784) 伯厚 龍邨

●元重舉(1719~1790) 子才 玄川 *●표는 서출(庶出)

하던 시기였다.

내용도 긴밀하지가 못했다. 준비단계에서 보인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열하일기』 텍스트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했다.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매력적인 ‘여행기’로서의 연행록을 텍스트로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추가 답사를 다녀오지 못한 것도 한계였다. 답사를 함께 한 멤버는 당대 최고의 관련 학자들⁴⁶⁾이었지만, 글쓰기 능력과 콘텐츠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었다. 4,5백명의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연행’이라는 제도와 연행록의 필자가 모두 남성인 상황에서 텍스트 자체가 남성 편향을 갖는데, 최정동의 『열하일기』는 답사팀의 ‘남성 취향’이 더해져, 아주 고약한 상황에 이르렀다. 장절의 제목에까지 ‘비노기’, ‘밤 연행’, ‘해치라는 처녀’ 등이 노출되어 있고,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이 버젓하게 실려 있다. 간행물로서의 답사기와 개인글로서의 일기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그해 출판사 ‘푸른역사’에서는 연행노정을 다룬 두 권의 단행본이 나왔다. 필자도 참여한 전문연구자의 쓴 답사기⁴⁷⁾와 최정동 기자의 답사기이다. 최 기자보다 두 달 먼저 나온 연구자들의 답사기는 연행을 다녀온 조선 문인(지식인)들이 남긴 온갖 시문을 압록강에서 산해관까지의 노정과 결합시키고, 그때까지 5회에 걸친 답사 경험을 버무려 쓴 책이다. 문학지리/문화지리를 표방하고 만든 책으로, 결국 1장에서 살펴본 지역재

46)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의 성과에 힘입어 영남대에서 명지대로 막 자리를 옮겼던 유홍준 교수를 단장으로 홍대용 연구의 권위자였던 동국대 김태준 교수, 연세대 철학과 이광호 교수, 조선사를 전공한 가톨릭대 안병욱 교수, 박지원과 『열하일기』에 정통한 영남대 김철조 교수, 임진왜란과 명청교체기 역사에 정통한 명지대 한명기 교수,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지선 선생, 화가 임옥상, 중앙일보 학술기자 배영대 등.

47) 김태준·이승수·김일환,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5.

의 『서정록을 찾아서』(7)와 가깝게 되었다. 시장에서는 성격이 모호한 책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인터넷서점에 가면 ‘조선시대사’ 항목에 가 있다. 최정동 기자의 책은 같은 역사 분야에 있지만, 역사/문화 기행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출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온갖 종류의 시문을 텍스트로 한 뻑뻑하고 두툼한 ‘학술서’보다는 저명한 신문사의 전문 사진기자가 낸 사진 위주의 ‘답사기’가 훨씬 상품성이 있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두 책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두 책 모두 절판 상태인데, 재판을 내지는 연락은 없다. 책을 내면서 고미숙 선생의 『열하일기』 리라이팅 책보다 우리 책이 훨씬 더 충실하고, 진지하고, 종합적이고, 섬세하다고 생각하여, 내심 한판 승부를 기대했지만, 결국 ‘유쾌함’을 이길 수는 없었다.⁴⁸⁾ 연구자가 쓴 답사기로는 동양사학자 서인범의 일련의 작업이 돋보인다. 그는 최부의 『표해록』을 길잡이로 항주에서 북경에 이르는 경향대운하 노정을 답사한 뒤에, 연행 노정과 일본 통신사행 노정을 차례로 답사하여 3부작으로 완성시켰다.⁴⁹⁾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인 비전문가 작가가 있었다. 국제경제연구원(KIEI) 책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사무국장, 국제민간경제협의회(PECK) 중국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장을 지낸 이보근 작가다. 한중수교 이전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담당했던 그는 퇴직 후 우연히 접한 『을병연행록』을 읽고 연행노정을 답사하기 시작하여, “몇 곳의 미답

48) 김태준, 이승수 두 분의 견해는 아니다. 전적으로 ‘보조원’이자 ‘막내’이며, ‘학문후속 세대’였던 필자만의 생각이었다.

49) 서인범,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항주에서 북경 2500km 최부의 ‘표해록’ 답사기』, 한길사, 2012; 『연행사의 길을 가다-압록강을 넘은 조선 사신, 역사의 풍경을 그리다』, 한길사, 2014; 『통신사의 길을 가다-전쟁이 아닌 협상으로 일군 아름다운 200년의 외교 이야기』, 한길사, 2018.

지점을 숙제로 남겨놓고는 있으나 압록강에서 열하까지 완주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자평하는 답사기를 출간했다.⁵⁰⁾ 그가 읽은 『을병연행록』은 숭실대에서 작업한 『주해 을병연행록』이다. 800쪽이 넘는 이 책은 숭실대 학교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을병연행록』의 궁서로 된 원문을 현대 활자로 바꿔 띄어쓰기만 하고, 한문본을 참조하여 주석만 붙여, 전공자들도 쉽게 보기 힘들어 한다. 1938년생인 작가는 회갑의 나이에 전공 자료서를 읽고, 연행 노정 답사에 나섰던 것이다. 물론 20여년이 넘게 중국 관계 업무를 봤고, 그 중에 4년 동안은 북경에 체류했기 때문에 언어 문제나 중국 현지에서의 적응력이 한국의 전문 연구자들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여하튼 『을병연행록』에 촉발된 그의 연행 노정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초, 지금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윤재영 선생의 문고판 『열하일기』 번역본⁵¹⁾을 본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어려워서 읽지 못한 기전체 부분 3-5권마저 읽게 되었다고 한다.⁵²⁾ 이후 김창업의 『연행일기』(1712), 서호수의 『연행기』(1790), 김경선의 『연원직지』(1832)로 점차 텍스트를 늘려 갔다. 실제로 '재야의 고수'들에게는 일찍이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이룩한 『국역 연행록선집』의 역할이 적지 않다.

이보근의 답사기는 연행 노정을 자세하게 나누어, 개별 항목으로 세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권은 의주 통군정(統軍亭)의 대안(對岸)인 <1. 마이산(馬耳山)>으로 시작하여 북경 입구인 통주 <66. 팔리교(八里橋)를 지나>에서 끝나고, 하권은 북경에 도착한 조선 사신들이 옷을 갈아입는

50) 이보근 지음, 『압록강에서 열하까지 연행노정 답사기-김창업의 연행일기,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현장에서 읽다』(상하 2권, 어드북스, 2014).

51) 박지원 저, 윤재영 역, 『열하일기』(전5권), 박영문고, 1982~1984. 윤재영 번역본이 갖는 의미는 물론 『열하일기』의 번역사에 대해서는 김철조, 『『열하일기』 번역의 여러 문제들』, 『漢文學報』 19, 우리한문학회, 2008 참조.

52) 그는 <도강록>부터 <환연도중록>까지를 일기체라고 하였다.

<1.동악묘(東嶽廟)>에서 시작하여 열하(熱河)의 라마교 사원 <55.찰십륜포(札什倫布)>에서 끝난다.

이 답사기는 내용이 평이하고 작가의 시선이 ‘안정’되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문 학자들의 답사에는 명시하지는 않지만 여행사에 계약된 ‘가이드’나 의지할 수 있는 현지인이 붙고, 다른 한국인 일행이나 동료와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답사기를 읽다보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데서 오는 서두름, 부정확한 정보와 열악한 현지 사정에 따른 낭패감 등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지만, 이 답사기에는 이런 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냉철한 상황 판단과 기민한 대처, 현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현지 자료⁵³⁾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원숙함과 경륜이 묻어난다. 박지원의 교묘한 글씨와 어려운 담론에 놀아나지 않고, 호란(胡亂)의 상처가 담긴 공간에서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탕참(湯站)에서 총수(葱秀)를 찾아갈 때 만나 삼륜차 운전기사 쑨(孫)과의 일화나 청석령을 걸어 넘으면서 생긴 아내의 발가락 상처를 치료하고 숙소에 안돈시키고 자신은 다시 대석문령(大石門嶺)을 답사하는 일화 등은 『열하일기』의 이 구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 사고를 연상시킬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삶의 통찰이 엿보이기도 한다. 심양에서는 숙소 앞에 있던 중산광장(中山廣場)을 매개로 동아시아의 현대사를 조망하기도 한다. 이 광장은 근대 격변기의 공간이지 전통적인 연행 노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쓰는 연행노정 답사기는 21세기의 『연행록』에 다름 아니다.

『열하일기』는 18세기 후반 선진국이었던 청나라에 대한 면밀한 체험

53) 상권에 인용되어 있는 현지 자료를 일부 보인다. 任鴻魁, 『丹東史迹』, 遼寧民族出版社, 2005; 東北民族與疆域研究叢書, 黃斌 張春萍 著, 『薛禮征東의史實與傳說』, 呼和浩特遠方出版社, 2008; 沈陽市政協學習宣傳文史委 編, 『歷史文化名城 沈陽』, 2006; 張志强 編, 『盛京古城風貌』, 沈陽出版社, 2004.

보고서이다. 특히 <심세편>은 소수민족인 만주족의 대륙 지배에 따른 정치적 딜레마와 중앙아시아의 소수민족들까지 포함된 복잡한 국제 질서, 이를 통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술과 사상 통제 정책까지 언급하고 있는 정치학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역 정치인들은 『열하일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던 차에 전직 국회의원의 답사기가 출간되었다. 17, 19, 20대 국회의원인 김재원의 『열하일기』다.⁵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친박계’에 대한 공천학살로 공천을 받지 못한 김재원은 2008년 7월, 중국 북경으로 간다. 북경대 국제관계원에 자리를 잡은 그는 우연히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230년 전 중국을 방문한 조선 지식인의 눈에 비친 중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고, 이후 5년 동안의 『열하일기』에 빠져들었다고 하고 있다. 그가 읽은 『열하일기』는 김철조의 완역본과 리상호의 번역본이었다. 내쳐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종합DB의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연려실기술, 홍대용의 『연기』까지 찾아 읽으며 그 시대 박지원의 고뇌에 공감하려 했다고 한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던 대표적인 전략통답게 재치있게 답사 일정을 잡았다. 1780년 6월 23일 압록강을 건넌 박지원의 일정에 맞추어 2013년 음력 6월 하순에 압록강을 출발했고, 8월 9일 열하에 도착한 일정에 맞추어 음력 9월 10일 경에 하북성 승덕시(承德市)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연암이 홍수로 몇새 동안 발이 묶여 있던 통원보 마을에 김재원 일행이 똑같이 몇새 동안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을 거니와, 해당 장의 내용을 보면 그 마을에서 1박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답사 경험을 적을 때는 월일을 분명히 하지 않고 ‘2013년 (늦)여름’으로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어, ‘디테일’에서는 말끔하지 못하다.

54) 김재원, 『막북에서 다시 쓴 열하일기』(상하 2권), 매일경제신문사, 2015.

이 답사기의 장점은 지도와 사진에 있다. 바이두의 지도와 내비게이션, 구글 지도와 위성사진을 다각적으로 활용한 답사 결과물을 지도와 위성 사진에 직접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 지도가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에서만 유용하다는 것이 한계다. 옛길과 현행 도로망이 어긋나 있는 단동에서 요양 구간, 이른바 ‘동팔참’ 구간은 매우 엉성하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는 청석령은 올라가다가 중간에 돌아오고 있다. 사진은 최정동 기자만큼이나 ‘퀄리티’가 보장된다. 최정동이나 이보근의 『열하일기』의 신국판(A5변형판)보다 넓고 긴 240*180mm판형을 취해 가로가 긴 풍경 사진의 양옆을 자르지 않고 온전히 다 보여주고 있어, 한마디로 시원시원하다.⁵⁵⁾ 요양호텔 맨 위층에 올라가서 찍었다는 <요양 백담>(사진 9-3, 상권 94쪽), 곧게 뻗은 도로 뒤로 펼쳐진 ‘십삼산’이 장관인 <석산진과 십삼산>(사진 20-4, 상권 184쪽)은 인상적이다. 물론 이런 사진의 구도는 김재원 의원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고투를 벌인 최정동의 일화나 『열하일기』 완역본에 보석처럼 박힌 김철조 교수의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구도나 위치 선정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⁵⁶⁾

이 답사기의 단점은 명확하다. 자기 이야기가 없다. 장은 『열하일기』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왔고, 절의 제목 역시 주체가 연암이다. 제1부라 할 수 있는 <도강록>의 제1절의 제목은 <연암 박지원, 압록강을 건너다>이고, 제 2절은 <구련성 밖에서 호랑이를 쫓으면 이틀간 노숙하다>, 제 3절은 <책문에서의 청나라 입국 심사>이다. 텍스트와 토론하거나 싸우지 않고, 작가를 비판하거나 욕하지도 않는다. 연암의 『열하일기』를 직접 인용하고

55) 사실 책의 볼륨에 비해 문자 텍스트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

56) 김재원은 출판하기 앞서 국회에서 사진전을 먼저 개최했다. 각종 인터뷰에서도 사진 8천장을 직접 찍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다.

있는데, 어떤 장에서는 작가가 쓴 글보다 『열하일기』 인용문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흔히 정치적 이슈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면 대개 강경파가 득세하게 된다. 강경하게 발언하면 용감해 보이고, 용감하면 선명하고, 선명하면 충성스러워 보인다. 강경파가 스스로 들떠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면 온건파는 숨을 죽인다. 강경파는 온건파를 회색분자라거나 비겁한 자로 매도하기 때문이다. 논쟁이 시작 되면 강경파는 온건파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선언한다. 적을 앞에 두고 강경과 처단에 혈안이 되면 불행하게도 강경한 목소리만 남게 된다. 역사의 비극은 강경파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⁵⁷⁾

‘우리 외교사의 한 장면’이라면서 병자호란 직전 나덕헌과 이확이 통원보에 청태종의 국서로 버리고 온 일, 그들에 대한 강경파들의 공격과 두 사람의 유배, 병자호란의 발발, 이를 공박했던 평안감사 홍명구가 김화 전투에서 전사했음을 보이면서 ‘강경파’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힌 대목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강경파와 ‘이념의 과잉’을 문제 삼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당에 그대로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나 보다.

2) 어린이 콘텐츠의 경우

한국고전번역원은 주된 업무인 ‘한문 고전 번역’ 외에 고전을 보다 다양하게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고전 대중화 도서>가 있다. 이 사업은 다시 ‘한국고전선집’, ‘어린이도서’, ‘교양 도서’로 나뉘는데, 가장 ‘대중화’된 작업은 역시 ‘어린이도서’ 간행이다.⁵⁸⁾

57) 김재원, 『막북에서 다시 쓴 열하일기』(상), 매일경제신문사, 2015, 72~73쪽.

58) <http://www.itkc.or.kr/bbs/board.do?id=101&menuId=170&bcIdx=48&menuId=170#1>

현재 15종이 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고전 재미있게 읽기> 시리즈 중 2권이 『열하일기』⁵⁹⁾와 북학파인 이덕무·박제가⁶⁰⁾를 다루고 있다. 두 편 모두 한문학을 전공한 강민경 작가의 작품이다.

『열하일기』는 쉬운 텍스트가 아니다. 도처에 깔린 우언(寓言), 도도한 문명론(文明論), 날카로운 심세(審勢) 등을 어린이 수준으로 낮추기는 더 어렵다. 『도강록』에 있는 ‘도는 어디에 있는가’나 ‘호곡장론’을 생각해 보면 될 일이다. 그래서 우회한 통로가 ‘하층민’이다. 여느 연행록과 달리 연암은 사행 중의 군뢰, 마두와 쇠마몰이꾼, 가게 주인(店主)와 서당 선생(村學究), 잡상인, 창기, 거지, 도사, 점쟁이 등의 하찮은 인물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 또한 마두 득룡이나 대중, 하인 장복과 창대, 통원보의 훈장 부도삼격, 진자점의 창기 유사사 등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함께 개성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⁶¹⁾ 강민경은 장복이와 창대라는 ‘짝패’를 화자로 등장시켜 열하까지의 연행을 일종의 ‘성장담’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13살 장복이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의 각성과 성장, ‘꿈’이라는 것이 매우 공소하게 다가온다. 더 큰 문제는 ‘원작’에 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강’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열하일기』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예열’ 없이 급발진처럼 여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불쑥 등장한 창대와 장복이에 선뜻 동화되기 어렵다. 둘을 주인공으로 세운 점도 시점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약점을 효율적으로 극복한 작품이 있는데, 소설가 김종광의 역사 동화 『조선의 나그네 소년 장복이』⁶²⁾이다. 그는 책을 한양에서 의주까지의 전반부와 압록강에서 연경까지의 후반부로 나누었다. 그래서 『열하일

59) 박지원 원작, 강민경 글, 최현목 그림, 『장복이, 창대와 함께하는 열하일기』, 2013.

60) 강민경 글, 정경심 그림, 『운명아, 덤벼라-이덕무와 박제가의 삶과 우정』, 2016.

61)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242~243쪽.

62) 김종광 글, 김옥재 그림, 『조선의 나그네 소년 장복이-『열하일기』 박지원과 함께한 청나라 기행』, 쌤터, 2014.

기』에는 없는 전반부를 20여종의 연행록과 18세기를 다룬 자료-앞에서 제시한 한문학적 성과들-를 섭렵하여, ‘열세살’ 소년 ‘종놈’ 장복이의 여행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흥미를 위해 연암 박지원은 물론 화원 김홍도, 중인 시인 조수삼, 기인 광대 달문이, 무사 백동수와 같은 실존 인물은 물론 조선에 표류한 유구국 공주같은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월·일을 밝히는 일기 구성을 하고, 장복이는 ‘나’로 등장하여, 여행을 통해 그가 점점 각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역시 몰아쳐가는 『막북행정록』 이후는 삭제하여, 북경에 입성하는 것으로 깔끔하게 끝내버렸다.

강민경의 두 번째 도서 『운명아, 덤벼라』는 이덕무와 박제가의 삶과 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열하일기』와 같은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두 사람이 남긴 적지 않은 시문에서 두 사람이 삶의 자취를 선택하여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전작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다. 장복과 창대의 ‘내면’은 작가가 만들어내야했지만, 박제가와 이덕무는 스스로의 서글픈 처지와 희망, 위로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동아리와 모꼬지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별로 번갈아 이덕무와 박제가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우도가 깊어지는 과정이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예를 들면, 1장 <글씨부터 만난 사람>은 이덕무의 시점에서 박제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는데, 그가 쓴 『楚亭詩稿序』를 리라이팅했다. 2장 <운명아, 덤벼라>는 박제가의 시점이다. ‘서자’⁶³⁾로서의 곤궁한 처지와 경제적 궁핍 속에서 절망하던 소년 박제가가 이덕무를 만남으로써 희망을 품고 있다. 3장 <한서 이불, 논어 병풍>은 다시 이덕무의 시점에서 자신의 빈한한 삶과 같은 처지의 유득공과 가난한 삶을 『耳目口

63) 백담파의 주요 멤버들을 다 ‘서자’나 ‘서얼’로 통칭하는데, 박제가가 갖는 좌절감은 특별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서자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유일하게 ‘적형(嫡兄)’을 가진 ‘서자’였다.

心書』의 여러 대목을 가져와 직조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구성 방식과 직조된 그림들이 새롭지가 않다. 구성 방식은 안소영의 『책만 보는 바보-이덕무와 그의 벗들 이야기』⁶⁴⁾와 흡사하다. 안소영은 이덕무의 짧은 자서전 「간서치전(看書痴傳)」에서 ‘외로움’에 공명하면서, 그의 벗들의 삶과 교류, 그들의 지향인 실학(實學)으로 확장되면서, 어른과 아이 모두 읽을 수 있는 이덕무의 ‘회고록 또는 자서전’을 탄생시켰다. 섬세하면서 여린 이덕무가 마음의 벗 박제가, 유득공, 백동수, 이서구와 사귀고, 더 큰 세상으로 이끌어준 스승 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을 만난 뒤에, 새로운 세상 중국과 대궐(규장각)으로 들어가는 구성 방식이 안정적이면서 자연스럽다. 특히 1793년 1월 24일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의 기록은 꿈결처럼 아름답게 그려진다.⁶⁵⁾

강민경 작가의 두 어린이 도서를 각기 동일한 소재와 주제의식으로 만들어진 다른 작품과 비교한 이유는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데 있지 않다. 지나치게 원작에 견인되어 있어 자연스럽지 못한 점을 말하고 싶었다. 이는 두 책이 전문출판사의 상업적 기획이 아니라 한문고전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 기관의 공모전 당선작인 것과 관련이 있다. 두 책 모두 공모전의 초반기와 시리즈의 앞쪽에 있어 여전히 ‘고쳐쓰기’와 ‘다시쓰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4. 맺음말

북학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출판물을 중심으로 콘텐츠화 양상 및 그

64) 안소영 지음, 강남미 그림, 『책만 보는 바보-이덕무와 그의 벗들 이야기』, 보림, 2005.

65) 김탁환이 『열하광인』에서 그린 이덕무의 죽음은 ‘격렬’하다.

성과를 검토해 보았다. 객차섭 교수의 3단계를 원용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연구자가 아닌 사진기자나 소설가가 3차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실제 작업 과정에서 보인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열하일기』를 포함한 북학파 혹은 실학파들의 연행록 번역과 고쳐쓰기 시도는 심상한 중국 여행을 답사로 끌어올렸고, 그렇게 만들어진 20세기, 21세기 답사기는 다시 새로운 『열하일기』가 되어 유의미한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걱정이 많지만 출판 분야에서는 그래도 아직 시장이 남아있는 어린이 대상 도서에서 한문고전을 콘텐츠화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확인하였다.

최정동 기자의 걱정과 달리 박희병 교수는 출판사 돌베개를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번역(현대역) 작업을 하고 있다. ‘21세기의 한국인이 부담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품격과 아름다움과 깊이를 갖춘 우리 고전’을 지향하는 ‘우리고전 100선’ 시리즈는 가장 대중적인 작업이라 하겠는데, 현재 22권까지 나왔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은 북학파 유득공의 작은 아버지이자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유금의 시집 『말뚝구슬』(2006)이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는 홍대용 선집 『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04, 김아리 편역, 2006)과 이덕무 선집 『깨끗한 매미처럼 향기로운 굴처럼』(09, 강국주 편역, 2008)이 포함되어 있다. 시리즈에 ‘담연그룹’의 구성원들의 글이 점차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병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박지원의 산문을 교감·번역·주석하되, 단락·문장·단어 수준까지 낱낱이 분석한 <연암산문 정독>을 간행한 바 있다.⁶⁶⁾

독자들의 한문/한자에 대한 선호 여부에 따라 연민본과 리상호본으로 양분되었던 『열하일기』 번역본 시장은 김철조 교수의 완역본 『열하일기』

66) 박희병·정길수 외 편역, 『연암산문 정독-역주(譯注)·고이(考異)·집평(輯評)』, 돌베개, 2007; 『연암산문 정독 2-역주(譯注)·고이(考異)·집평(輯評)』, 돌베개, 2010.

(2009)로 평정되었다. 연민의 고졸하지만 난삽한 번역, 부드럽게 읽히지만 한자어가 없어 현대 한국인에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던 리상호본과 달리 김철조 교수 번역본은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번역되었고, 풍부한 도판과 지도가 결합되어 있어 가독성이 높다. 다만 번역의 대본이 되는 원문(교감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텍스트로 쓰기에는 저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고, 이를 텍스트로 삼아 10주 동안 『열하일기』를 완독하는 모임⁶⁷⁾ 등이 성황리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편집자/필사자의 의도대로 ‘개악(改惡)’이 이루어진 기존의 활자본이나 필사본에 선행한 초고본까지 번역에 반영한 개정신판(2017)이 나왔는데, 박지원의 개성과 파격이 강조되면서 인기가 더 높아졌다. 물론 박지원의 『열하일기』 및 기타 작품의 필사본에 대해서는 소장처인 단국대의 동양학연구원에서 간행한 ‘연민문고소장 연암박지원작품필사본 총서’(전20권) 발간 작업과 같은 기초 자료 확충 작업이 선행되었음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실학과 유물을 소장한 것으로 이름 높은 숭실대 기독교박물관에서는 연전에 소장하고 있던 홍대용의 필사본 자료를 영인하였다. 박지원과 홍대용은 모두 1930년에 발간된 활자본 자료로 연구와 번역이 진행되면서 후학에 의해 조정된 이미지로 고착되었는데, 두 사람의 생생한 육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성균관대 출판부와 사단법인 실시학사의 실학번역총서를 중심으로 북학파는 물론 다른 실학과 인물들의 저작이 번역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유득공의 역사로서의 시집 『이십일도회고시』⁶⁸⁾나 연행록으로서의 시집 『열하기행시주』⁶⁹⁾, 『열하일기』와 『북학의』의 성격을 모두 가진

67) 한양대 박수밀 교수가 클럽장이 되어 10주 동안 『열하일기』 전편을 강독하는 모임이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것이 15기인데, 경기도 양평의 ‘책읽는 부엌’에서 이루어졌다.

68)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역주 이십일도회고시』, 푸른역사, 2009.

이희경의 『설수외사』 등이 그렇다. 성해응이 구축한 방대한 지적 체제인 『연경재전집』도 『초사담헌』⁷⁰⁾과 『난실담총』⁷¹⁾ 등 역사·인물사 관련 부분부터 번역되고 있다.

『열하일기』가 주목받는 것과 별도로 다른 중요한 연행록도 속속 번역되면서 연행록 자체는 물론 연행이라는 제도와 연행 노정에 대한 정보가 확충되고 있다. 박지원이 자신들의 선배로 인정했던 일암 이기지의 『일암연기』⁷²⁾와 같은 완역본이 있는가 하면, 세기별로 중요한 연행록을 선정하여 대중들이 흥미를 가진 내용을 발췌·번역하여 해당 세기 연행의 전모를 보여주는 기획도 있다. 고미숙·우용순이 주도하는 낭송시리즈의 여행기편으로 편제되었는데,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소리내어 읽기 편하게 번역하여 가독성이 높다.⁷³⁾ 적어도 『열하일기』를 비롯한 연행(록) 분야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학문적 글쓰기, 두 번째 단계의 고쳐쓰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세 번째 단계로의 전환이 가장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2018년 경향신문 후마티나스연구소가 주최했던 인문기행은 <열하일기>를 읽고 그 노정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5차체에 걸친 강의도 물론 적지 않은 여비에도 불구하고 봄에 있던 1차 답사, 가을의 2차 답사까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69)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열하를 여행하며 시를 짓다- 열하기행시주熱河紀行詩註』, 휴머니스트, 2010.

70) 이성민·손혜리 옮김, 『연경재 성해응의 초사담헌』, 사람의무늬, 2015.

71) 윤세순 옮김, 『연경재 성해응의 난실담총』, 학자원, 2017.

72) 이기지 저, 조용희·신익철·부유섭 공역, 『일암연기: 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73) 김현미 저, 『낭송 18세기 연행록』, 북드라마, 2019; 김영숙 저, 『낭송 19세기 연행록』, 북드라마, 2019.

참고문헌

-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궁핍한 날의 벗-박제가 산문선』, 태학사, 2000, 1~289쪽.
-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북학의』, 돌베개, 2003, 1~303쪽.
-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완역정본 북학의』, 돌베개, 2013, 1~544쪽.
-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쉽게 읽는 북학의』, 돌베개, 2014, 1~270쪽.
- 박제가 지음, 정민·이승수·박수밀 외 옮김, 『정유각집』(상중하, 전3권), 돌베개, 2010, 1~592; 1~684; 1~700쪽.
- 박종채, 김영호 해설, 송옥 역, 『아버지 朴燕巖』, 『文學思想』 1974년 5월호, 371~398쪽; 6월호, 342~365쪽.
- 박종채 저, 김윤조 역주, 『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1~430쪽.
-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1~437쪽.
- 박지원 저, 윤재영 역, 『열하일기』(전5권), 박영문고, 1982~1984, 1~266; 1~261; 1~304; 1~274; 1~269쪽.
- 박지원, 민족문화추진회 편, 『열하일기』, 솔, 1997, 1~298쪽.
- 박지원 지음, 김철조 옮김, 『열하일기』(전3권, 개정판), 돌베개, 2017, 1~560; 1~519; 1~584쪽.
- 박지원 지음, 고미숙·김풍기·길진숙 옮김, 『세계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상하), 그린비, 2008, 1~299; 1~391쪽.
- 박지원 지음, 고미숙 엮음, 이부록 그림,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아이세움, 2007, 1~268쪽.
- 박지원, 박희병·정길수 외 편역, 『연암산문 정독-역주(譯注)·고이(考異)·집평(輯評)』, 돌베개, 2007; 1~344쪽.
- 박지원, 박희병·정길수 외 편역, 『연암산문 정독 2-역주(譯注)·고이(考異)·집평(輯評)』, 돌베개, 2010, 1~380쪽.
- 성해웅, 이성민·손혜리 옮김, 『연경재 성해웅의 초사담헌』, 사람의무늬, 2015, 1~472쪽.
- 성해웅, 윤세순 옮김, 『연경재 성해웅의 난실담총』, 학자원, 2017, 1~680쪽.
- 유재건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이향견문록』(개정판), 글항아리, 2008, 1~960쪽.
- 유득공,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역주 이십일도회고시』, 푸른역사, 2009,

1~271쪽.

- 이기지 저, 조용희·신익철·부유섭 공역, 『일암연기: 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788쪽.
- 홍대용 撰, 김태준 편, 『을병연행록』(국학자료총서 3), 명지대학출판부, 1983, 1~654쪽.
- 홍대용, 소재영·조규익·장경남·최인황 주해, 『국문으로 된 최초의 장편기행-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1~842쪽.
- 홍대용 원작, 김태준·박성순 편역,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1~504쪽.
- 홍대용 지음, 정훈식 옮김, 『을병연행록-18세기 장편 국문 연행록의 현대어 완역본』(전2권), 경진, 2012, 1~558; 1~487쪽.
-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3(개정판, 2004), 1~462쪽.
-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개정신판), 북드라망, 2013, 1~488쪽.
- 곽차섭, 「고전은 어떻게 '실용화'되는가?-영어권의 경우를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41~52쪽.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1~308쪽.
- 김영죽 저, 『낭송 19세기 연행록』, 북드라망, 2019, 1~200쪽.
- 김영호, 『조선의 협객 백동수』, 푸른역사, 2002, 1~347쪽.
- 김영호, 『조선의 협객 백동수-18세기 조선 남아들의 인생 역정』(수정증보판), 푸른역사, 2011, 1~367쪽.
- 김재원, 『박목에서 다시 쓴 열하일기』(상하 2권), 매일경제신문사, 2015, 1~347쪽; 1~335쪽.
- 김종광 글, 김옥재 그림, 『조선의 나그네 소년 장복이-『열하일기』 박지원과 함께한 청나라 기행』, 샘터, 2014, 1~220쪽.
- 김탁환, 『김탁환의 원고지-2000~2010 창작일기』, 황소자리, 2011, 1~368쪽.
- 김탁환, 『방각본 살인 사건』(백담과, 그 첫 번째 이야기, 상하 2권), 민음사, 2003, 1~373; 1~348쪽.
- 김탁환, 『열녀문의 비밀-백담과 그 두 번째 이야기』(상하 2권), 민음사, 2005.

1-338; 1~348쪽.

김탁환, 『열하광인, 백담과 그 세 번째 이야기』(상하 2권), 민음사, 2007, 1-327; 1~294쪽.

김탁환, 『목격자들-조운선 침몰 사건』, 민음사, 2015, 1~379; 1~423쪽.

김태준·이승수·김일환,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5, 1~559쪽.

김현미 저, 『낭송 18세기 연행록』, 북드라마, 2019, 1~240쪽.

김철조, 『『열하일기』 번역의 여러 문제들』, 『漢文學報』 19, 우리한문학회, 2008, 679~718쪽.

박동욱, 「고전 산문 대중화의 현황과 전망-한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4, 국제어문학회, 2017, 371~402쪽.

서현경, 「연민선생과 『열하일기』 번역」,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151~186쪽.

안소영 지음, 강남미 그림, 『책만 보는 바보-이덕무와 그의 벗들 이야기』, 보림, 2005, 1~285쪽.

오수경, 『연암그림 연구』(수정증보판), 월인, 2013, 1~381쪽.

이보근 지음, 『압록강에서 열하까지 연행노정 답사기-김창업의 연행일기,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현장에서 읽다』(상하 2권), 어드북스, 2014, 1~399쪽; 1~399쪽.

이우성, 『郷土서울』 17호, 1963.7(이우성, 「18세기 서울의 都市의 樣相」,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비평사, 1982, 35~79쪽.)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연암 박지원의 예술론과 산문미학』, 태학사, 2003, 1~365쪽.

지영제, 『서정록을 찾아서-고려 시인 익재 이제현의 대륙 장정』, 푸른역사, 2003, 1~655쪽.

최남선, 『朝鮮歷史講話』, 『六堂崔南善全集』 1, 현암사, 1973, 1~723쪽.

최정동, 『연암 박지원과 열하를 가다』, 푸른역사, 2005, 1~390쪽.

ABSTRACT

Northern School of Practical Learning as the Contents

Kim, Il-hwan

‘Northern school of practical learning’ in this paper means those who were united around Park Ji-won and Hong Dae-yong in late 18th- century as being called ‘Yeonam group’, ‘Yeonam School’, ‘Damyeon group’, or ‘Damyeon party’ depending on researchers. They were teachers and students, seniors and juniors, and friends.

The humane solidarity and hobbies they demonstrated and their attitudes and acts on the circumstances in their times remain in their literary works and artistic achievement and make us living in these days feel intellectual interest, beauty and impression. This paper investigated the life of the Northern school of practical learning around the series of ‘Baektap School’, the historical novel by Kim Tak-hwan and the approach and process restoring the historic and social direction.

The travel to the Ching dynasty, academic exploration, communication and interactivity with the public as well as the intellectuals and the encounter with old territory and history by the Northern school of practical learning are converged into the record on the experience, that is, Record of Travels of Korean Embassies to China, and the experience ‘envoy to Ching’. The representative record is ‘Rehe Diary’ by Park Ji-won. This paper identified how people living in the 21st century meet the Northern school of practical learning by analyzing the essay on visiting the sites described in ‘Rehe Diary’.

Through both approaches above, it was identified that the researchers and authors should sincerely deliberate the importance of the translation on the classics and what and how to be newly created.

Key Words Northern School of Practical Learning, Rehe Diary, analyzing the essay,

Kim Tak-hwan, Translation on Classics, Contents

논문투고일 : 2019.06.28

심사완료일 : 2019.08.07

게재확정일 : 2019.08.18